

교회교육 사역에서의 담임목회자의 역할

이 석 철
<기독교교육 · 교수>
chan3@kbtus.ac.kr

들어가는 말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효과적인 사명 성취를 위해서는 교육적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교회는 교육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교회사역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담임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현실은 교육 사역에 대한 담임 목회자의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교회교육에 있어서 담임 목회자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목회자의 리더십 (pastoral leadership)을 크게 자극하고 지도해 주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교육자로서의 목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the key issue)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¹⁾

특히 한국교회와 관련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이와 같은 문제 제기과 필요성의 강조가 있어 왔다. 이훈구는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1) Robert L., Browning, ed., *The Pastor As Religious Educator* (Birmingham,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9), 1.

“교육목회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하였다”고 진단하면서, 한국교회가 살고 바르게 성장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교육목회로 한국교회의 병든 부분을 수술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다시 교회의 터를 닦고 새 출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 정웅섭도 교육에 대한 “목회자의 근본적인 의식개혁 및 행태 변화”³⁾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자도 역시 이러한 문제 인식에 공감하면서, 본 연구를 통하여 교회교육에 있어서 담임 목회자의 역할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주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먼저 교회의 교육사역에 대한 목회자의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목회사역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를 목회의 본질적 의미, 가르치는 직분으로서의 목사직, 그리고 교육적 커리큘럼으로서의 목회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회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교육적 역할들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의식과 행태’의 양면이 모두 포함되도록 본 연구주제를 다루었다.

I. 목회사역에서의 교육의 위치

1. 목회의 본질적 의미

목회는 영적인 목양으로서 하나님의 양무리인 교회를 ‘먹이는 일’이요 ‘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요 21:15-17). 이것은 다른 말로 교회를 ‘돌보는 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교회의 교인들을 기르는”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양을 먹이는 일, 치는 일, 돌보는 일 또는 기르는 일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여기에는 먹을 것을 충분히 주는 것과,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질병과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영적인 목양으로

2) 이훈구, 『예수님의 교육목회』 (서울: 은혜출판사, 2000), 19, 21.

3) 정웅섭,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341.

4) 김형태, 『목회적 신학』 (서울: 도서출판 기독한교, 2006), 25.

서의 목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사역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즉, 목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일이요,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의 핵심적 활동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목회란 교육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를 돌보는 일로 표현할 때 그 의미는 가르친다는 교육을 제외시키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돌봄의 핵심적인 의미는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공동체를 먹이고, 보호하며, 치유한다는 교육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목회의 진정한 의미는 교육목회”⁵⁾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이해를 잘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교육목회’라는 말이나 ‘목회의 교육화’ 같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교육학적 전문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으로서의 교육목회는 필요한 것이지만, 목회 그 자체의 핵심이 교육이라는 이해는 기본적으로 모든 목회자에게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담임 목회자에게는 이러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목회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볼 때도 우리는 목회의 핵심적인 본질이 교회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목회사역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을 지도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하는 일”⁶⁾이라고 정의한 것이나, “교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 자체”⁷⁾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돌보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이다. 즉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가르치는 일과는 무관하며, 단지 심방이나 상담, 그리고 예배 인도 등의 사역을 통하여 하는 것이라고 생

5) 박기윤, 『교육목회를 통한 교회성장의 이론과 실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119.

6) 신현광, 『교육목회와 교회성장』 (서울: 민영사, 1997), 머리말.

7) 백성중, “교육목회의 가능성,” 『복된 말씀』, 20권 10호 (1973. 12): 46, 장신근, “한국교회 교육목회의 시대별 전개와 미래 과제,” 『한국 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고용수 외 11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7), 90에서 재인용.

각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현광은 한국교회의 목회개념의 현실이 설교와 심방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교육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⁸⁾ 이러한 문제는 한국교회에서의 ‘목회와 교육의 이원화’라는 지적에서도 언급되어 왔다. 즉, 성인들은 ‘목회’의 대상이고 미성년들은 ‘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러한 개념에서는 목회라는 것이 성도들을 ‘돌보는 것’으로서 교육과는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이원화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에서조차 목회에 대한 편협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목회의 기능에는 가르치는 일(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의 기능에는 돌봄의 차원(목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영택은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교육의 목회화’와 ‘목회의 교육화’가 필요함을 말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개념은 ‘돌봄’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교육의 목회화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교육을 목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돌봄 또는 양육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목회의 교육화는 “돌보는 일을 교육의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목회라는 것을 교육과는 별개의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⁹⁾

2. 가르치는 직분으로서의 목사직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막 6:34) 같은 무리들에게 참 목자로서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은 곧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일이었다. 신약 시대의 교회들에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의 활동과 역할을 살펴볼 때도 목회의 핵심적인 속성은 교육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언급되어 있는 교회의 지도자 직분들 중에 “목사와 교사”라는 표현은 하나의 정관사로 묶여져 있는 원문상의 구조를 볼 때 ‘목사 즉 교사’ 또는 ‘목사 겸 교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영

8) 신현광, 『교육목회와 교회성장』, 머리말.

9) 임영택, 『교육목회 실천』(서울: 도서출판 KMC, 2006), 20-1.

어로는 ‘shepherd and teacher’가 아니라 ‘teaching shepherd’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즉, 목사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직분인 것이며, 우리말로도 ‘牧師’라고 표현하는 것은 ‘양무리를 치는 교사’로서의 의미를 잘 나타낸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8-31절에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신” 직분에 대하여 “사도, 선지자, 교사”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교사’는 곧 ‘목사’를 지칭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¹⁰⁾ 사도행전 20장 17-38절에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장로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목양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곧 바울 사도가 실천하였던 것처럼, “그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보호하게 하는 말씀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있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딤후 1:11)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감독, 장로, 목사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던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역을 하는 직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¹¹⁾ 목사의 이와 같은 성경적 기능과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많은 학자들이 ‘목사-교사’(pastor-teacher)¹²⁾ 또는 ‘목사-교육자’(pastor-educator)¹³⁾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칼빈의 경우에는 담임 목사와 구별되는 직책으로서 ‘교사’(doctor)라는 직책을 세워서 제네바교회의 교리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도 역시

10)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110.

11) D. Guthrie and J. A. Motyre, *The New Bible Commentary: Revised* (Grand Rapids: Eerdmans, 1970), 116.

12) Rick Yount, “The Pastor as Teacher,”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Integrating Biblical Truth with Contemporary Application*, Daryl Eldridge, ed.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 121-39.

13) Calvin D. Kuder, “Me--a Pastor-Educator,” *The Pastor's Role in Educational Ministry*, Richard Allan Olson, e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15.

목사의 가르치는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만 교사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교회의 예식이나 징계 등의 수행 임무까지 담임 목사가 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모든 목회자들은 교사임에 틀림없지만, 임무에 있어서는 모든 교사들이 목사인 것은 아니었다”¹⁴⁾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역할에 있어서 목사와 교사는 모두 가르치는 교육의 책임을 같이 수행하였고, 다만 특정한 교회의 예식과 징계는 목사만이 하도록 직책상의 구분을 두었다는 것이다.¹⁵⁾

3. 교육적 커리큘럼으로서의 목회 활동들

모든 목회자는 목회를 교육적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모든 실제적 목회 활동들을 도모해야할 필요가 있다. 목회가 근본적으로 교육이고 목회자는 근본적으로 교사요 교육자라는 것은 반드시 그 활동이 교실에 국한된 것이라든지 또는 학교식 교육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으로서의 목회는 “매우 다양한 장소들 안에서”¹⁶⁾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포함하는 것이며, 설교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존재 양식들”(all that church does and is)¹⁷⁾이 교육으로 인식되고 실천되는 것을 말한다. Browning은 이것을 “목회 커리큘럼”(pastoral curriculum)¹⁸⁾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는데, 설교와 예전, 목회적 돌봄, 형식적 및 비형식적 교수, 선교, 그리고 윤리적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사실 ‘커리큘럼’이라는 말은 교육학적 전문용어로서 교육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수-학습활동의 과정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를 목회에 접목시켜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목회의 교육적 본질을 깊이

14)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108.

15) Ibid., 111.

16) Richard Allan Olson, ed., *The Pastor's Role in Educational Ministr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5.

17) Browning, *The Pastor As Religious Educator*, 3.

18) Ibid., 4.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Harris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교육 커리큘럼으로 이해하고 접근한 저술을 하기도 하였다.¹⁹⁾

실제로 목회의 핵심을 교육으로 이해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목회 활동을 교육적 활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신현광은 이것을 교육목회로 설명하면서 그것은 “목회의 다양한 차원들을 교육적 견지에서 이해하고 성도와 교회의 성숙을 도모하는 목회철학이요 그 실천”²⁰⁾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목회적 실천의 가능성에 대해서 Rehfeldt는, “교회에서의 모든 목회적 기능들은 가르치는 기능이 될 수 있다”²¹⁾고 보았으며, 그 예로 목회자가 집례하는 침례식과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등을 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목회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교육으로 통하는 것”²²⁾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rowning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신의 목회에서 이러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는 “명백한 가르침의 영역들”(obvious areas for teaching)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의 각종 행정적 회의와 모임들에서 평신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교육목회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²³⁾ 이러한 ‘명백한 교육영역이 아닌’ 영역들은 ‘숨겨진 커리큘럼’(hidden curriculum)이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역시 이 잠재적 커리큘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⁴⁾

19) Maria Harris,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Louisville: Westminster/Knox Press, 1989). 우리말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회중 형성과 변형을 위한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20) 신현광, 『교육목회와 교회성장』, 87.

21) Richard Rehfeldt, “The Road to Educational Ministry,” *The Pastor's Role in Educational Ministry*, ed. Richard Allan Ols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33.

22) 정일웅, 『교육목회학: 한국 교회와 신앙 교육』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3), 109.

23) Browning, *The Pastor As Religious Educator*, 34.

24) *Ibid.*, 4.

II. 담임목회자의 교육적 역할들

1. 교육사역팀의 리더 역할: 교육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교육사역에 대한 감독

Sparkman은 담임 목회자를 가리켜 ‘교육팀의 리더’(leader of an educational team)라고 하였다.²⁵⁾ 한 교회의 교육사역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수행하는 ‘협력적 사역’(a cooperative enterprise)²⁶⁾이다. 그리고 그 팀장은 담임 목회자인 것이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담임 목회자는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를 교육공동체로서 인식하도록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과, 교육사역 전반을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주도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된다. 교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로서 담임 목회자는 교육사역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와 관련하여 Gangel은 “목사가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작동시키는 데 대한 열쇠를 갖고 있음”²⁷⁾을 강조하였다. Grigg와 Walther도 “담임목회자가 기독교교육의 계획과 지도에 관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²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과 목회의 본질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담임 목회자는 교회의 교육사역에 단순히 관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실로 한 교회의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사역에 있어서도 담임 목회자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rowning도 말하기를, 만일 교회의

25) G. Temp Sparkman, “The Pastor as Leader of an Educational Team,” *The Pastor As Religious Educator*, Robert L. Browning, ed. (Birmingham,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9), 126, 130.

26) Browning, *The Pastor As Religious Educator*, 1.

27) Kenneth O. Gangel, 『교회교육의 리더십』, 권명달 역 (서울: 보이스사, 1991), 82.

28) Donald L. Griggs and Judy McKay Walther, *Christian Education in the Small Church* (Valley Forge: Judson Press, 1988), 20.

모든 생활이 “신앙의 학교”(the school for faith)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담임 목회자는 자신이 돌보는 교회가 어떤 종류의 학교가 될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담임 목회자는 한 회중의 감독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회중의 삶의 모든 측면들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 사실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를, 담임 목회자는 한 대학의 총장과도 같은 위치에 있는 자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교육 공동체의 교육적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총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²⁹⁾ 이러한 관점에서 Williams는 담임 목회자의 역할이 교회로 하여금 기독교교육의 철학을 정립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의 태도와 행동이 교육에 대한 높은 평가를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³⁰⁾

이를 위해서 담임 목회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교육사역의 궁극적인 책임자요 지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회를 하나의 교육공동체로서 모든 교인들이 인식하도록 이끌어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기윤은 담임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 패러다임을 교육목회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성경적 근거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8-20)과 디모테를 향한 바울의 목회적 권면(딤후 4:13)을 제시하였다.³¹⁾ 실로, 목회의 핵심은 교육이고 모든 목회자는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목회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님의 이 명령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최종적인 실천사항이라고 볼 때, 이는 교육적 명령이다. 이 명령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모든 성도 개개인들과 교회들이 준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에게 주

29) Browning, *The Pastor As Religious Educator*, 36.

30) Sherman Williams, “The Pastor and Christian Education,”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Werner C. Graendorf, ed. (Chicago: Moody Press, 1981), 234.

31) 박기윤, 『교육목회를 통한 교회성장의 이론과 실제』, 118.

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구보다도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목회자들이 우선적으로 이 명령의 철저한 수행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목회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교육 명령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그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Kuder는 자신을 ‘목사-교육자’(pastor-educator)로 인식하게 된 근거를 예수님의 명령에서 찾았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친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흘러간 역사 속에서... ‘나의 의무’(my mandate)인 그 명령이 취소된 적이 없다.”³²⁾ Niebuhr도 목회자는 모든 전통적인 기능들(설교, 예배 인도, 성례전 집행, 영혼의 돌봄, 교회 행정)을 수행하면서 그의 제일의 우선적 기능이 교회를 세우는 일(building), 또는 ‘가르치는 일’(edifying)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였다.³³⁾ Browning 또한 모든 목회자들의 중심적 역할(a central role)은 최초와 최고의 목회자(the original *bonus pastor*)이셨던 예수님의 역할과 똑같은 것으로서 그것은 교육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하였다.³⁴⁾

목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의 신앙공동체인 지역 교회를 돌보는 일인데, 그것의 본질은 교회 자체의 본질,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기독교라는 신앙의 본질에 부합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基督教, Christianity)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에 근거한 신앙과 행습으로 이루어진 종교이며, 교회(教會)는 기독교의 신앙과 행습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학교’인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교육에 있으며 이는 곧 목회의 본질도 결정시켜주는 것이다. 교회의 이러한 본질에 관하여 신현광은 말하기

32) Kuder, “Me--a Pastor-Educator,” 16.

33) H. Richard Niebuhr, *The Purpose of the Church and Its Ministr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6), 82, Browning, *The Pastor As Religious Educator*, 36에서 재인용.

34) Browning, *The Pastor As Religious Educator*, back cover.

를, “교육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³⁵⁾이라고 하였다. 정일웅 또한 목회사역의 본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을 기초로 한 목회를 지향하며 우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관”이라고 하였다.³⁶⁾ 그는 이러한 목회관의 정립의 근거를 교회의 교육적 본질에서부터 찾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한문 표기의 敎會는 가르칠 교자와 모임 회(무리 회)로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 모여온 무리(하나님의 백성)를 뜻한다. 즉 교회는 교육적 관점에서 더 비중을 두고 표현됐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특이성이라 할 것이다. 즉 교회는 목회사역의 현장으로서 그 중심은 교육하는 일로서의 역할이 막중함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목회사역이 교육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³⁷⁾

교육공동체로서의 교회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을 어떤 이는 ‘교육목회의 회복’이라고 표현하였으며 박봉수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하였다.³⁸⁾ 이것의 실천을 위해서 정웅섭은 교회에서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목자”로서의 목회자 상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우선적으로 담임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목회를 향한 ‘의식 개혁’이며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행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³⁹⁾ Olson은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에 대하여 자신의 사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말하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문제제기에서 개인화로, 참석에서 참여로, 외우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흡수하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직접 하는 것

35) 신현광, 『교육목회와 교회성장』, 머리말.

36) 정일웅, 『교육목회학: 한국 교회와 신앙 교육』, 6, 101.

37) Ibid., 110.

38) Richard R. Osmer, 『교육목회의 회복』,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5.

39) 정웅섭,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341.

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⁴⁰⁾

교회의 교육사역팀의 수장으로 담임 목회자의 역할에는 전체적인 교육사역에 대하여 감독하는 일이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Williams는 이 역할과 관련하여, 비록 교회에 교육을 전담하는 부사역자들이 있다고 해도 담임 목회자는 이러한 총체적인 감독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였다.⁴¹⁾ Gangel도 교육사역팀의 수장으로서의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끊임없는 관계의 사역”으로 표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1)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후원을 제공하며, 교육사역에 참여하는 스텝진의 노력을 통합하는 일을 해야 한다. (2) 교회교육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주 만나서 함께 계획하고 기도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실시될 때 그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교육사역 지도자들에게 교인들이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격려하고, 교육 지도자들을 사역의 동료로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⁴²⁾

담임 목회자는 자신의 의식 개혁과 행태 변화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교회 구성원 전체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목회적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이 한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그것은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의 질,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세우고 확신시키는 목회자의 능력, 또한 교회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교인들을 이끌고 나가는 일에 대한 목회자의 자신감이라는 것이다.⁴³⁾ 담임 목회자는 이처럼 자신과 교인들이 모두 교육공동체로서의 교

40) Olson, *The Pastor's Role in Educational Ministry*, 35-45.

41) Williams, “The Pastor and Christian Education,” 238.

42) Gangel, 『교회교육의 리더십』, 83-8.

43) Janet Fishburn, “The Definition and Supervision of Effective Ministry” (An unpublished paper describing research undertaken as a result of a consultation sponsored by the Northeastern Jurisdic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1987), Browning, *The Pastor As Religious*

회에 대한 정체감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사역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비공식적 기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목표를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분위기를 좌우하며 결정짓는 위치에 있는 담임 목회자가 자신의 일치된 말과 행동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므로 큰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2. 직접적인 교육 역할: 성경과 신학을 가르침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사는 가르치는 목자로서 그의 핵심적 역할은 교육자로서의 역할이다. ‘교육자’로서의 역할은 목회자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는 간접적 가르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임 목회자의 직접적인 교육 역할은 성경과 신학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는 성경과 신학의 전문가로서 교인들에게 이 분야의 교육을 행하기 위한 책임자이며 또한 그것이 그의 중요한 책임인 것이다. 즉, 담임 목회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삶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의 가르침들을 해석하여 자신의 믿음을 정립하고 성숙시켜 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의 필요성에 대하여 Osmer는 다음과 같이 잘 진단하였다.

회중 내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건과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교인들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해에 관한 확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신교 교역자들은 거의 없다. 매우 중요한 것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교역자들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문제가 일차적으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평신도들에게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늘의 주류 개신교 교회들에게서 상실된 것은 회중들에게 성경과 기독교 교리의 기초에 관해 가르

Educator, 2에서 재인용.

칠 살아 있는 교수직이다.⁴⁴⁾

실로 오늘날의 수많은 변화와 삶의 도전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삶에 대하여 성경적인 답변을 갈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목회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통한 교훈과 의미를 찾아내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목회자의 교육적 책임에 대하여 정웅섭은 “무엇보다도 교육목회에서 목회자의 할 일이란… 회중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⁴⁵⁾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Lak도 가르치는 목자로서의 목회자의 주된 역할에 대하여 ‘신학적 교육가’(theological educator)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중요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은 교인들이 씨름하고 있는 ‘신학적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그런 점에서 목회자에게는 ‘신학자’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⁴⁶⁾ 따라서 목회자들은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신학적 대변인들’(theological spokesmen)이 되어야 하며, 오늘날의 교회 현장에서 이러한 신학 교육이 모든 교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크고 절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⁷⁾

Olson 또한 교회교육에서 이와 같은 신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꼭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어떤 문제들이 되었든지, 목회자들은 신자들의 개인적 및 사회적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신자들이 세상에 대하여 신학적 및 윤리적 민감성을 가지고 비평하며 새로운 시각으

44) Osmer, 『교육목회의 회복』, 10.

45) 정웅섭,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342.

46) Yeow Choo Lak, *Minister As Theological Educator* (Geylang, Singapore: Stamford College Press, 1979), vii.

47) *Ibid.*, vii-ix.

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교육이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은 교회사역 현장에서 신학 교육자들로서의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신자들로 하여금 과거의 신학들을 기억하게 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 부합되면서도 새로운 신학적 관점을 얻게 하고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⁸⁾

그런데 담임 목회자의 대표적인 직접적 교육활동은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선포 또는 공포의 기능도 있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게 하는 교훈의 기능도 있는 말씀사역의 방법이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교육의 도구와 수단”⁴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담임 목회자는 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목자로서의 그의 교육적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를 가리켜서 영어로 ‘pastor’라는 말 외에도 ‘설교자’를 뜻하는 ‘preacher’라는 말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⁵⁰⁾ Geiger는 이와 관련하여 말하기를, “담임 목회자는 교회에서 제1의 교육자(primary educator)이며 설교는 그의 가장 효과적인 교육 기회”⁵¹⁾라고 하였다. 아무튼 담임 목회자가 설교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그의 목회사역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임 목회자는 성경과 신학 교육자로서 교회공동체와 그 구성원 개개

48) Olson, *The Pastor's Role in Educational Ministry*, 6.

49) 정일웅, 『교육목회학: 한국 교회와 신앙 교육』, 367.

50) 설교는 영어로 표현할 때 정확하게는 ‘sermon’ 또는 ‘homily’이지만 때로는 ‘preaching’이라고도 한다. 이 ‘preaching’이라는 것은 원래 ‘선포’의 의미를 갖는 말로서 ‘설교’와 동일한 용어는 아니다.

51) Donald M. Geiger, “The Pastor's Educational Ministry,” *Christian Education: Foundations for the Future*, eds., Robert E. Clark, Lin Johnson, Allyn K. Sloat (Chicago: Moody Press, 1991), 414.

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서, 설교의 교육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설교 외에도 담임 목회자가 다른 방법으로 교인들을 직접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 소그룹이나 개인별 성경공부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의 다양한 훈련들을 담임 목회자가 직접 인도하는 일이 실제로 목회사역 전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설교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수단이지만 그것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담임 목회자는 설교 이외의 방법으로도 폭넓게 교인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Williams는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설교자와 교육자’로 규정하였다.⁵²⁾ 특히 목회사역상 담임 목회자가 꼭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새들백교회에서는 새교우만을 담임 목회자가 맡아서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⁵³⁾ 또한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담임 목회자 외에 다른 부사역자들이나 평신도 사역자들이 충분히 교육의 현장에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의 직접교육의 필요는 일반적으로 매우 크다. 한 학교의 교장이나 총장이 직접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것처럼, 담임 목회자도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의 현실은 담임 목회자로 하여금 많은 시간을 직접적인 가르침에 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Kuder라는 목회자는 자신이 교회의 교실에서 가르치는 데 투입하는 시간이 1년에 124시간인 것으로 계산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 활동과 관련된 행정과 준비의 시간까지 합하면 연 480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대학교수와 비슷한 교육 시간이라고 하면서, 목사는 교수에 비해서 행정적 지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의 교육환경이 더 열악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요점은 그만큼의 시간을 어떤 일에 투입한다는 것은 그 일이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주된 활동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이

52) Williams, “The Pastor and Christian Education,” 233.

53)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6), 354.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교육자’(a professional educator)라는 사실이다.⁵⁴⁾

3. 간접적 교육 역할: 평신도들의 개발과 활용

담임 목회자의 간접적인 교육 역할은 교회의 평신도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역할은 그의 평신도 구비(具備)사역이라는 넓은 범주의 사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언급된 “목사 즉 교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12절)는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으며, 그것은 한 마디로 평신도 구비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역 중에서도 평신도들을 개발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사역, 즉 교육을 위한 구비사역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은 담임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교육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교회의 교육사역은 담임 목회자가 모든 부분을 직접 할 수가 없다. 물론 교회사역의 규모가 작을 때나, 또는 다른 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담임 목회자가 직접 모든 교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러한 사역의 패턴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다. 따라서 담임 목회자는 자신이 반드시 직접 교육해야 하는 영역이나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간접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Williams도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구비자(equiper)로서 설명하면서, 담임 목회자는 ‘우두머리격의 교사’(the chief teacher)이며 그의 역할을 스스로 직접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⁵⁵⁾

54) Kuder, “Me--A Pastor-Educator,” 15-6.

55) Williams, “The Pastor and Christian Education,” 236.

우리나라 교회들의 풍토는 전문 목회자들만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물론 미성년자들의 교회교육은 평신도들이 담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문제는 성인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일반 평신도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고 한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 사역의 패턴은 충분한 자격이 있고 준비된 평신도들이 다른 평신도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실제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행 18:24-28; 15:35; 딤후 2:3-4; 히 5:12; 약 3:1), 이러한 평신도들의 교육사역 참여 확대 현상은 복음전파에 따라 늘어난 교육적 수요의 증대로 인한 것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오늘날에도 그러한 평신도의 교육사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주된 사역이며 이것이 비록 ‘간접적’ 교육 역할일지라도 그 중요성은 ‘직접적’ 교육 역할에 못지않은 것이다. 특히 교회의 교육사역의 이상적인 주체는 전체 회중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담임 목회자의 이 간접적 교육을 통한 평신도 교육자들의 개발과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교회들의 풍토에서 더욱 더 요구되는 사역이라고 판단된다.

평신도들을 구비시켜서 목회자들과 함께 가르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일은 개신교회의 중요한 신념 중의 하나인 만인제사장 사상에도 잘 부합되는 것이다. Browning은 이 사상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주창되었지만 사실 오늘날까지 이것은 입으로만 외쳐온 “끝나지 않은 개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혁명적인 사상이 교회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비전이라고 하였다. 그는 목회자야 말로 이 만인제사장 철학의 구현이라는 비전을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였다.⁵⁶⁾

56) Browning, *The Pastor As Religious Educator*, 3.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이 사역의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평신도 구비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Lak는 목회자가 자신의 사역의 한 부분이 평신도 지도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반 사역자들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⁵⁷⁾ 또한 Browning은 목회자의 전반적인 사역 성공을 위한 주된 자질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위협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들의 평신도 구비사역에 대한 저항 때문에 지나치게 부담감을 느끼지도 않음을 실제 조사를 통하여 발견하였다. 성공적인 목회자들은 또한 평신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돕는 일에 유능하며, 다른 목회자들보다도 더욱더 평신도들의 교육과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Olson도 자신의 가르치는 사역이 평신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교육 사역을 발견하고 설계하며 실행하도록 돕는 일에 점점 더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이 평신도 구비사역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로서, 좀 더 협동적인 스타일로 사역할 것과, 가르침의 사역을 더 폭넓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것, 자신을 변화시키는 태도를 배양하는 교육에 참여할 것 그리고 편견들을 극복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⁵⁹⁾

57) Lak, *Minister As Theological Educator*, ix.

58) Browning, *The Pastor As Religious Educator*, 2.

59) Olson, *The Pastor's Role in Educational Ministry*, 20.

나가는 말

한 교회의 교육사역은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Beal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은 “교회들이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워져가고 유지된다고 믿는다”⁶⁰⁾고 하였다. 그렇다면 교회의 교육사역에 대한 담임 목회자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는 교회사역에서 설교와 전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⁶¹⁾ 담임 목회자 역할의 이러한 중요성에 대하여 Geiger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기독교교육 사역이 우리 성도들을 돕고 또한 날로 세속화되어 가는 우리의 사회를 복음으로 효과적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서 담임 목회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회의 규모가 커서 교육을 전담하는 부목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회교육이 마땅히 누려야 할 중요한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회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항상 그래 왔고 지금보다 더 그러한 때도 없었다.⁶²⁾

실로 목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먹이고, 보호하며, 치료하는 교육적 행위이다. 목사라는 직분도 ‘교사’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는 일이 그 핵심적인 기능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목회활동이 형식적 및 비형식적 교육의 과정과 수단이 되는 것이다. 담임 목회자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인식과 확신을 실천하기 위한 역할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교회의 교육사역에서 담임 목회자가 해야 할 주요 역할들은 먼저 교육사역에 참여

60) Will Beal, comp., *I'm My Own M.E.!*. (Nashville: Convention Press, 1985), 4.

61) *Ibid.*, 4.

62) Geiger, “The Pastor's Educational Ministry,” 411.

하는 전체 구성원들의 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이다. 이는 교회의 교육공동체로서 인식하게 하는 정체성의 확립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교육사역 전반을 감독하여 교육사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되고 나아가게 하는 주도적 역할이다. 또한 담임 목회자는 교육자로서 직접적인 가르침의 활동과 간접적인 가르침의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설교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과 삶에 대하여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사고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평신도들을 전인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주며 복음사역의 주체로 참여하게 하는 구비사역을 하는 일이다. 담임 목회자가 이와 같은 역할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때 교회는 교육사역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형태. 『목회적 신학』. 서울: 도서출판 기독한교, 2006.
- 박기운. 『교육목회를 통한 교회성장의 이론과 실제』.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8.
- 이훈구. 『예수님의 교육목회』. 서울: 은혜출판사, 2000.
- 임영택. 『교육목회 실천』. 서울: 도서출판 KMC, 2006.
- 신현광. 『교육목회와 교회성장』. 서울: 민영사, 1997.
- 장신근. “한국교회 교육목회의 시대별 전개와 미래 과제.” 『한국 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고용수 외 11인, 87-135.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7.
- 정웅섭.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 정일웅. 『교육목회학: 한국 교회와 신앙 교육』.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3.
-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 Beal, Will, comp. *I'm My Own M.E.!*. Nashville: Convention Press, 1985.
- Browning, Robert L., ed. *The Pastor As Religious Educator*. Birmingham,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9.
- Eldridge, Daryl, ed.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Integrating Biblical Truth with Contemporary Application*.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
- Gangel, Kenneth O. 『교회교육의 리더십』. 권명달 역. 서울: 보이스사, 1991.
- Geiger, Donald M. "The Pastor's Educational Ministry." *Christian Education: Foundations for the Future*, eds. Robert E. Clark, Lin Johnson, Allyn K. Sloat, 411-25. Chicago: Moody Press, 1991.
- Griggs, Donald L. and Judy McKay Walther. *Christian Education in the Small Church*. Valley Forge: Judson Press, 1988.
- Guthrie, D. and J. A. Motyre. *The New Bible Commentary: Revised*. Grand Rapids: Eerdmans, 1970.
- Harris, Maria.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 _____. 『회중 형성과 변형을 위한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Lak, Yeow Choo. *Minister As Theological Educator*. Geylang, Singapore: Stamford College Press, 1979.
- Olson, Richard Allan, ed. *The Pastor's Role in Educational Ministr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 Osmer, Richard R. 『교육목회의 회복』.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테, 1996.
- Williams, Sherman. "The Pastor and Christian Education."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ed. Werner C. Graendorf. 233-44. Chicago: Moody Press, 1981.